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23년 6월 11일 (둘째 주일)

성경본문 : 레위기 19장 1-2절

설교제목 :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1절) 하나님 나라는 물리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법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취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자신과 공동체는 말씀이 성취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성취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민주주의 원칙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닙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온 회중에게 말씀하십니다.(2절) 너희는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거룩을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힌트가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5:1에 보면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배우고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신5:2)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구약 선지서가 모두 17권인데 선지서에서 언약을 회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신혼의 사랑입니다. 쉽게 말해서 결혼식입니다. 언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결혼입니다. 따라서 언약을 맺기 전까지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18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는 일반적인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언약을 맺은 다음에 말라기까지 이스라엘의 죄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이제 오직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의무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의 언약이 아닙니다. 신명기를 듣는 제 2세대를 향한 언약입니다.(신5:3) 그리고 뉴 이스라엘인 우리와의 언약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거룩입니다.(살전4:2) 우리의 존재 목적은 거룩입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우위를 점위해서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거룩한 삶입니다. 누가 이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응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거룩은 무엇입니까? 레위기 19장이 거룩은 십계명의 삶입니다. 레위기 19장은 십계명에 관한 말씀입니다.(레19:3-4) 거룩이란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과 이웃사랑은 우열의 개념이 아니라 같은 개념입니다.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화목제입니다. 화목제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화목제사는 이웃과 함께 나누는 제사입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에는 무관심하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조차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웃사랑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화목제사는 동기와 목적에 따라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감사제인 경우에는 제사드린 당일에 제물을 다 나누어 먹어야 합니다. 서원제나 자원제인 경우는 그 다음 날까지 제물을 나누어 먹어야 합니다. 만일 사흘째 되는 날까지 제물이 남아 있으면 반드시 불태워서 버려야 합니다. 이 법칙을 어기고 기한이 지나서도 남은 제물을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드린 제사는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그 행위 자체도 하나님에 대한 범죄가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법칙을 세우셨습니까? 만일 이러한 법칙이 없으면 절대로 이웃과 나누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법칙이 없다면 인간은 절대로 나누

려고 하지 않고, 쌓아두려고 할 것입니다. 쌓아두고 곰팡이가 나고, 녹이 생겨도, 절대로 나누지 않을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삼일동안 고기가 남았다는 것은 나누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례를 통해 누구와도, 나누게 됩니다. 이웃사랑의 핵심은 나누는 것입니다. 예배의 기쁨이 이웃에게 흘러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예배의 기쁨이 삶의 이웃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물질의 복을 흘러 보내는 자입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나누니까? 약자들에게 나누어야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법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폐아법이라고 합니다. 농부가 수확할 때, 흘리는 것들을 다시 줍지 말고 밭모퉁이를 남겨두라고 합니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라는 것입니다.(레19:9-10) 그러면 문제가 모퉁이가 얼마큼입니까? 구전율법인 미쉬나의 풀이를 보면, 최소한 밭의 60분의 1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모퉁이를 남깁니까? 폐아법은 약자에 대한 배려입니다.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와 룯은 이 폐아법 때문에 양식을 구했습니다. 이웃사랑의 구체적 실천은이웃을 위한 모퉁이를 남겨야 합니다. 없는 재정에 이웃을 위해 나눈다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10절 마지막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에 16번이나 기록되었는데, 19장에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여호와란 언약의 하나님을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즉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모퉁이를 남기면 손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모퉁이를 남긴다고 해서 걱정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와 언약을 맺은 전능한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게 하고 더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모퉁이가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이즈를 정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실 모퉁이의 사이즈는 은혜와 믿음이 결정합니다. 법으로 모퉁이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대로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놓은 재산의 양은 절반입니다. 삭개오의 모퉁이는 재산의 절반입니다. 사도행전 2:2에 보면, 성령체험을 하니 자기 땅 모두가 모퉁이로 보입니다. 거룩은 무엇입니까? 나의 모퉁이를 이웃을 위해 남기는 것입니다. 재물을 이웃 사랑을 위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생각해 보기

- 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거룩을 원하시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봅시다.(레19:2/참고 신5:1-3)
- 2) 레위기 19장이 말하는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더불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같은 것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3) 폐아법이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말씀 나누고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예배의 성공은 우리의 삶에 자리에 이어져서 이웃사랑으로 성취될 때 참된 예배가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됩니까?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물질이나 시간이나 재능의 모퉁이를 남겨서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의 모퉁이는 어떤 것인지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